

긴급 중소기업지원 대폭 확대

KIKO가입 기업 긴급유동성(300억)지원, 정책자금 만기연장, 상환유예 등
중소기업 유동성 애로 및 KIKO 피해지원 세부실행방안 도출

▶ 문의 : 중소기업청 기업금융과(042-481-4377)

- 중소기업청(청장 홍석우)은 최근 환율급등과 중소기업 유동성 악화에 따른 중소기업 금융 공급 확대를 위해 중소기업 금융지원위원회를 10월 9일(목, 7시30분) 은행회관에서 개최하였다.
 - 홍석우 중소기업청장과 이경준 기업은행 부행장, 윤상구 우리은행 부행장 등 금융기관과 이은범 지역신용보증재단연합회장 등 중소기업 · 금융지원 유관기관들이 참석하였다.
- 금번 회의는 환율급등에 따른 KIKO 가입기업의 손실 확대, 은행의 자금긴축 등으로 중소기업 자금압박이 가중됨에 따라
 - 우선 연말까지 긴급한 자금수요 대응을 위해 300억원의 유동성 지원을 발표하는 한편,
 - 지난 10.1일 마련한 '중소기업 유동성 지원방안'의 조속한 시행과 은행의 中企대출 확대, KIKO 등 파생금융상품의 손실 재발방지등을 위해 정부와 민간이 공동으로 노력할 부문을 모색하기 위해 개최되었다.

① KIKO 가입 기업에 긴급 유동성 자금지원(300억원)과 정책자금 만기연장 또는 상환유예조치 시행

중기청은 기 수립한 '중소기업 유동성 지원방안(10.1)'에 따라 회생특례자금 300억원을 추가 조성하고, 10.9일부터 KIKO 손실 등 긴급성이 높고 상대적으로 소규모인 기업을 우선 지원할 예정이며, 이와함께 KIKO가입 중소기업중 유동성 애로가 있는 기업에 대해 정책자금 만기연장 또는 상환유예 조치(최대 18개월)도 시행한다고 밝혔다.

또한, 2009년도에는 긴급경영안정자금 3,000억원을 KIKO 등 유동성 위기기업에 우선적으로

지원하는 한편, 자금수요를 감안 동 자금의 대폭적인 확대를 추진할 계획임

② 은행의 중소기업 유동성 및 KIKO 손실기업에 대한 신속한 지원과 일선창구 점검 촉구

‘중소기업 유동성 지원방안’에 따라 자금 유동성에 애로가 있는 중소기업에 대해 은행이 신속하게 지원하고,

KIKO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에 대해 도덕적 해이를 유발하지 않는 범위내에서 KIKO 손실액을 평가항목 산정시 분리하거나, 기술성·성장 가능성을 평가에 반영 등 중소기업계의 의견을 반영해 줄 것을 요청하였으며, 또한, 은행의 급격한 자금회수, 대출한도 축소, 추가 담보요구 등이 확산되어 중소기업 대출이 급격히 감소되지 않도록 일선창구에 대한 지도·감독을 강화해 줄 것을 요청했다.

중기청은 금융기관의 유동성 지원시스템에 대한 원활한 작동여부를 점검하고, 문제점이 발견되면 중소기업에 실질적 지원이 가능하도록 제도를 보완해 나갈 계획임을 밝혔다.

③ 중기청과 은행이 공동으로 환리스크교육 및 컨설팅 지원 추진

최근 환율급등으로 인해 KIKO 등 장외통화파생상품에 가입한 수출 중소기업들이 큰 손실을 보고 있는 등 환위험 관리 방법에 대한 인식이 부족한 실정이어서 환리스크교육 및 컨설팅 강화 필요성을 제기했다.

이에따라 중소기업 수출지원센터(12개)와 은행이 공동으로 중소기업 환위험교육프로그램 개발, 은행의 외환거래담당자 강사 활용, 수출중소기업 컨설팅 등을 통해 교육을 대폭 확대하고 교육의 질도 제고해 나가기로 하였다.

2009년도 창업 활성화 및 R&D 예산 지원 증액

중소기업청은 2009년도 중소기업 창업활성화 및 R&D지원을 대폭확대하고, 중소기업 영항평가제도 도입 등 특별사업을 추진하여 실효성 있는 중소기업 지원체계를 구축해 나갈 계획이다.

▶ 문의 : 중소기업청 기획재정담당관실(042-481-4362)

- 중소기업청은 '09년도 중소기업청 소관 예산안이 총 1조 5,961억원이라고 발표했다. 이는 '08년도 대비 1.2%가 감소한 모습을 보이나, 실제 기금 건전성이 호전된 신용보증기관에 대한 정부 출연금 감소를 제외할 경우 17.1% 증가한 수준이다.



※ 예산기준 : (08) 1조 6,155억원 → (09) 1조 5,961억원 (194억원 감, △1.2%)

(신기보 출연 제외시) : (08) 1조 3,455억원 → (09) 1조 5,761억원(2,306억원 증, 17.1%)

- 또한, 중소기업에 대한 정책자금 용자규모 등을 포함한 총지출 예산은 5조 3,191억원으로 '08년도 대비 1.3%가 증가한 모습이다.

※ 총지출기준 : (08) 5조 2,532억원 → (09) 5조 3,191억원 (659억원 증, 1.3%)

① 고용창출 지원을 위한 창업 및 인력양성 예산 획기적으로 확대(791 → 2,024억원, 1,233억원 증액, 155.9%)

- 중소기업의 일자리 창출을 위한 창업 및 인력양성 예산이 '08년 791억원에서 '09년 2,024억원으로 확대(1,233억원 증, 155.9%) 될 예정이다.

※ 중소기업 근로자수 : ('97) 8,272,648명 → ('06) 10,884,650명, 261만명 증가

※ 대기업 근로자수 : ('97) 2,524,156명 → ('06) 1,560,438명, 96만명 감소

- 한편, 만성적인 중소기업 인력부족 문제를 해결하고, 특히 중소기업 현장인력 수급의 미스매치 현상을 완화하기 위해 중소기업의 수요를 반영한 인력양성사업을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 중소기업 인력부족률(%) : ('05) 4.3 → ('06) 3.8 → ('07) 3.9(90천명)

② 중소기업의 기초 기술경쟁력 확보를 위한 R&D 지원 확대(4,300 → 4,870 억원, 570억원 증액, 13.3%)

- 중소기업의 근본적 경쟁력 강화를 위해 중소기업에 대한 R&D 지원 예산을 08년 4,300억원에서 09년 4,870억원으로 확대(570억원 증, 13.3%)할 계획이다.

③ 전통시장 시설현대화 지원 등 서민생활안정 지원(1,990 → 2,237억원, 246 억원 증액, 12.4%)

- 최근 대형마트 확산, 소비행태 변화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전통시장의 급격한 위축을 방지 하기 위해 아케이드, 주차장, 진입로 등 편리한 쇼핑 환경조성을 지원하는 전통시장시설현대화 사업을 대폭 증액(1,486 → 1,749억원)한다.

④ 기타 중소기업 영향평가제도 도입 등 특별사업 추진

- 09년도 특별사업은, 첫째 중소기업에 과도하거나 불필요한 관련 규제를 현장 중심으로 혁파하고 각 부처가 규제 신설·강화시 중소기업계의 합리적 의견이 반영될 수 있도록 하는 중소기업 영향평가제도를 도입(신규 5억원)하기로 하였고,
- 둘째, 첨단 벤처·중소기업 육성을 위해 서울시가 조성중인 마포구 상암새천년신도시 택지개발 지구(DMC : 디지털미디어시티)내에 중소기업의 디지털 미디어, IT, 콘텐츠 등 생산·연구·교육·지원시설 등을 집적화한 중소기업글로벌지원센터 건립 비용의 일부('09년 10억원)를 지원하여 원스톱 지원체계를 구축할 계획이다.
- 셋째, 내년 6월 중소기업연구원 주관으로 세계 40개국 8백여명의 중소기업학자 등이 참여하는 국제회의 개최(ICSB)를 지원(4억원)하여 국내외 중소기업 관련 산·학·연 네트워킹 확대를 지원하고
- 마지막으로, 중소기업청 예산에 직접 포함되지는 않았지만 복권기금사업으로 장애인기업의 창업보육, 경영애로상담, 컨설팅 등을 종합적으로 지원하는 '장애인기업 종합지원센터' 건립예산(100억원)을 반영하였다.

중소기업 유동성 지원 및 경영안정자금 대폭 증액 된다.

KIKO 거래 중소기업의 유동성에 대한 정밀실태조사를 실시하고, 내년도 중소기업 경영안정 자금을 대폭 증액할 계획이다.

▶ 문의 : 중소기업청 기업금융과(042-481-4377)

중소기업 유동성 지원대책 마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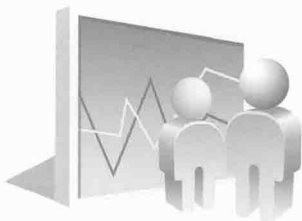
- KIKO 손실 중소기업에 대한 은행의 자금지원은 10월말부터 본격 시작하여 늦어도 11월중에 완료될 전망이다.
 - 아울러, 중소기업청(청장 홍석우)은 KIKO거래 중소기업에 대한 유동성 실태조사와 함께 금융기관의 중소기업 지원상황에 따라 금년내 정책자금을 추가 조성하거나, 내년도 경영안정자금을 대폭 증액하는 방안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 지난 10.1일 정부가 마련한 중소기업 유동성 지원 추진현황을 보면, 당초 목표대로 차질없이 추진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 ① 은행 자율적인 유동성 지원(Fast Track 프로그램)은 10.20일 현재 78개 업체에 대한 평가를 완료하고, 보증심사 등 자금지원절차를 진행중이며,
 - ② 일시적 경영애로 중소기업 지원을 위한 중기청 회생특례자금(300억원)은 10.21일 현재 51개업체에서 328억원을 신청하였고, 이중 2개업체 3.2억원을 지원하기로 결정하였다.

KIKO 가입 중소기업 인식조사 실시

- 은행의 자율적인 유동성 지원(Fast Track 프로그램)에 대하여 조사대상 업체 대부분(44개사, 83%)이 '알고 있다' 라고 응답하였다.
- KIKO거래 중소기업의 업체당 평균 유동성 부족금액은 '08년중 28억원, '09년중 59억원인 것으로 조사되었으며,
- 중소기업 유동성 지원을 위한 요구사항으로 '정책자금 확대' (38.1%), '민간금융에 대한 지급보증' (27.0%), '정책금융 신청요건 완화' (20.6%) 등 정부의 직접 지원 요청이 많았다.

유동성 지원사업 중점사항

- ① 중소기업 유동성 지원방안이 은행 일선창구에서 차질없이 이행되도록 모니터링을 강화
 - 지방청, 중진공에 ‘중소기업 유동성 이행점검반’ 을 두고 KIKO 거래 기업의 ‘Fast Track 프로그램’ 참여를 독려하는 한편, 진행상황에 대한 모니터링을 강화하기로 했다.
 - ※ 이행점검반 : 은행의 평가등급 재평가 요구, KIKO계약은행협의와 이견사항, 자금지원관련 은행의 우월적 지위 남용사례 조사 등
 - 은행의 기업평가 결과 C/D등급 기업중 이의신청 기업에 대하여 지방청 현지조사를 통해 재무 외적인 사항을 포함한 객관적 의견을 ‘외부공동평가협의체’ 에 제시하는 등 적극적인 지원활동을 전개해 나가기로 했다.
- ② KIKO 가입 중소기업 유동성 현장조사 및 정책자금 확대 검토
 - KIKO 가입 중소기업에 대한 정확한 자금 유동성 부족 현황과 향후 손실규모 파악을 위해 지방 중기청·중진공을 통해 현장 실태조사를 실시할 계획이며,
 - 이를 토대로 은행의 적정 자금지원여부, 정책자금 수요파악 등의 자료로 활용해 나갈 계획이다.
 - 현재 회생특례자금에 대한 중소기업 신청이 폭주함에 따라 은행의 중소기업 지원상황을 보아 가며 필요시 금년내 정책자금 추가 증액을 검토하는 한편,
 - '09년 긴급경영안정자금 3,000억원을 유동성 위기기업에 우선적으로 지원하고, 자금수요를 감안 동 자금의 대폭적인 증액을 추진할 계획이다.



KIKO